

불소고무, 환경규제 강화로 순풍

세계시장 1만2000톤 수준 ... 내열성·내약품성 우수 자동차용 호조

Fluoro Rubber는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절연성이 뛰어나 합성고무 중에서도 성능이 가장 우수해 Engine Room 내의 가스켓과 Oil Seal, 연료계 호스 등 자동차 부재가 주 용도이며, 전선피복, OA기기 관련, 반도체 제조장치,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된다.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꾸준한 수요신장이 예상되고 있고 환경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사용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Fluoro Rubber의 주축은 Vinylidene Fluoride계로 차세대 제품으로 초고성능인 Perfluoro Elastomer계 및 Asahi Glass가 전개하는 Tetrafluoroethylene과 Propylene의 호환 공중합체계 등도 각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는 1만2000톤 정도로 일본 내수는 2500톤 수준이다. 앞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탄화수소의 배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연료 호스 등에 Fluoro Rubber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엔진의 과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재물의 내열성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Fluoro Rubber의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OA기기의 내열전선용 수요가 증가하고 Cogeneration용 Boiler 배기계통에서도 Fluoride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4/06/02>